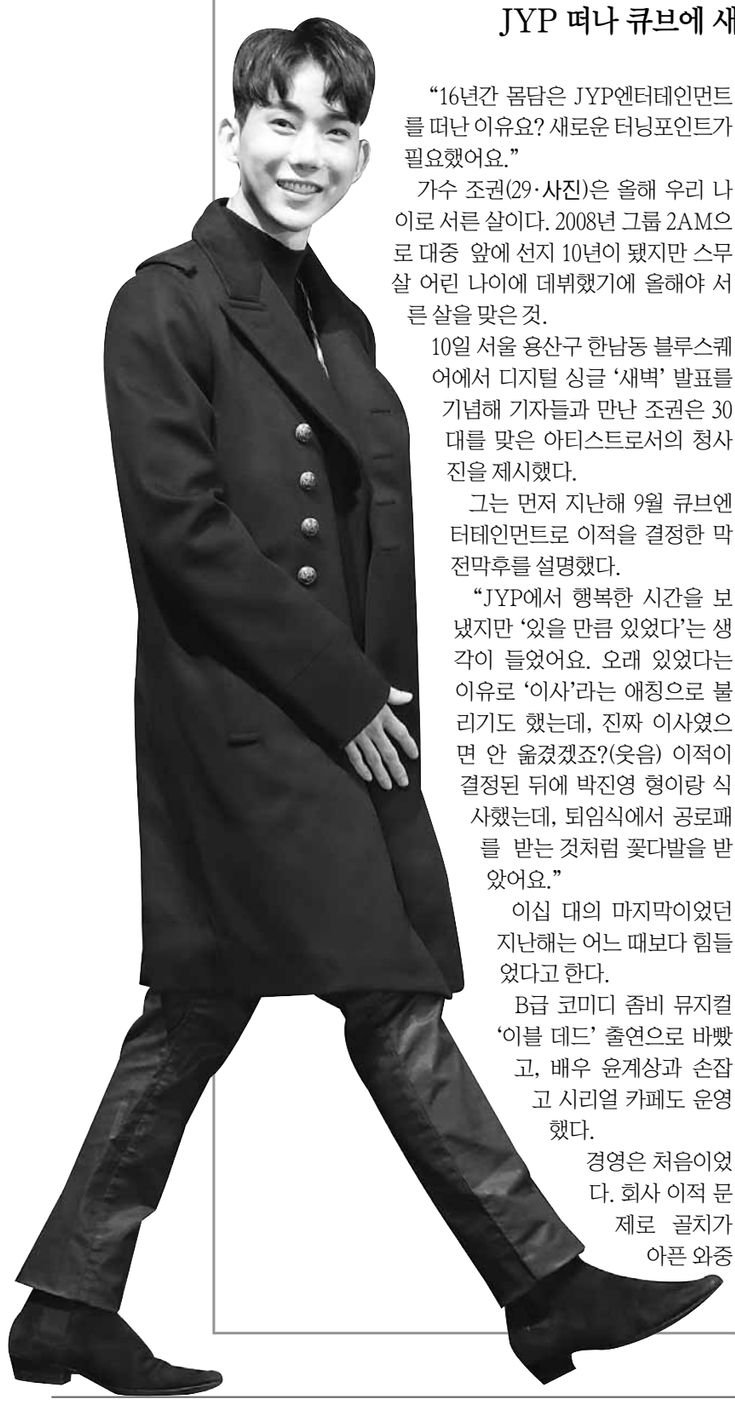
"내 나이 서른, 터닝포인트가 필요해"

'2AM' 조권, 새 싱글 앨범 '새벽' 발표

JYP 떠나 큐브에 새둥지 "그룹 해체 안해"



"16년간 몸담은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이유요?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필요했어요."

가수 조권(29·**사진**)은 올해 우리 나이로 서른 살이다. 2008년 그룹 2AM으로 대중 앞에 선지 10년이 됐지만 스무살 어린 나이에 데뷔했기에 올해야 서른 살을 맞은 것.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디지털 싱글 '새벽' 발표를 기념해 기자들과 만난 조권은 30대를 맞은 아티스트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난해 9월 큐브엔터테인먼트로 이적을 결정한 막전막후를 설명했다.

"JYP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있을 만큼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진짜 이사였으면 안 옮겼겠죠?(웃음) 이적이 결정된 뒤에 박진영 형이랑 식사했는데, 퇴임식에서 공로패를 받는 것처럼 꽃다발을 받았어요."

이십 대의 마지막이었던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고 한다.

B급 코미디 좀비 뮤지컬 '이블 데드' 출연으로 바빴고, 배우 윤계상과 손잡고 시리얼 카페도 운영했다.

경영은 처음이었다. 회사 이적 문제로 골치가 아픈 와중에 차 접촉사고를 당해 "'아홉수'에 걸렸나" 한탄도 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큐브의 첫 주자로 '새벽'을 내게 된 조권은 "정말 설렌다"며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신곡 '새벽'은 새벽하늘을 보며 사랑했던 연인을 떠올리는 쓸쓸한 심정을 그린 발라드다. 뮤직비디오는 비투비 임현식의 친형인 임윤식 감독이 연출했으며, '프로듀스 101' 시즌2로 주목받은 유선호가 출연했다.

조권은 "2AM의 발라드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며 "큐브로 옮겼다고 갑자기 스타일을 바꾸기보다는, 노래에 제 본질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말미에 2AM의 향후 행보를 묻자 조권은 "해체는 절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네 멤버 중 정진운(27)은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이창민(32)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임슬옹(31)은 싸이더스HQ에 각각 몸담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정규 3집 '렛츠 토크'(Let's Talk) 이후 함께 활동하지 않고 있다.

"원래 앨범 준비를 한 번 했었는데 임슬옹 형의 군대 문제로 다음 기회를 노려보기로 했어요. 창민이 형은 '군필돌'이지만 저와 정진운 씨도 곧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요. 이후에 언제든지 2AM으로 뭉칠 기회는 열려 있어요. 팬들에게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쓴맛을 다 겪어본 네 남자가 부르는 발라드가 어떨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조권에게 앞으로 꿈을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잊히고 싶지 않다. 규정되고 싶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프리실라' 등 각종 뮤지컬 무대에서 '드랙 퀸'(여장남자)으로 분하는 것도 성별과 직업 등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다고 했다.

조권은 "저는 발라드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미스테리한 사람"이라면서 "20대에는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면 30대에는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구축하겠다. 다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대에는 하이힐을 신고 미친 사람처럼 퍼포먼스를 하다가 갑자기 피아노 앞에선 발라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티스트로서의 제 욕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예진, 안방극장 복귀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출연

"걱정도 되지만 설레는 마음 크죠"

배우 손예진(36·**사진**)이 JTBC 드라마로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JTBC는 10일 "손예진이 오는 3월 방송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손예진의 드라마 출연은 2013년 KBS 2TV '상어' 이후 5년 만이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그냥 아는 사이였던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서 그려나가는 연애담이다.

손예진이 연기할 윤진아는 커피 전문 기업의 매장총괄팀 소속 슈퍼바이저로, 일도 사랑도 제대로 이뤄놓은 게 없다고 느끼는 공허한 30대다. 그러던 중 '절친'의 동생이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고, 진아는 철없는 동생일 뿐이었던 그가 예전과 달라 보여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연출은 드라마 '하얀거탑'(2007), '밀회'(2014), '풍문으로 들었소'(2015) 등과 영화 '국경의 남쪽'(2006)을 만든 안판석 PD가 맡았다.

손예진은 5년 만의 드라마 복귀에 대해 "조금 걱정도 되지만 설레는 마음이 크다. 잘 준비해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언터처블'과 '미스티' 후속으로 3월 방송 예정. /연합뉴스

장동건, SM C&C 떠나 1인 기획사 설립

"전 소속사와는 협력관계 유지"

안방극장·영화 등 다각 행보

배우 장동건(46·**사진**)이 약 6년간 몸담았던 SM C&C를 떠나 1인 기획사를 차린다.

SM C&C는 10일 "장동건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기로 한 게 맞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향후 장동건의 행보에 응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장동건은 2008년에도 1인 기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경험이 있으나 2012년에 이 회사가 SM C&C에 합병되면서 그동안 SM C&C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장동건은 오는 4월 KBS 2TV에서 방송 예정인 드라마 '슈츠'로 '신사의 품격' 이후 약 6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다. 영화 '7년의 밤'과 '창궐'의 개봉도 앞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흑기사 (재)	50 로봇이 아니야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의 마음	55 내 남자의 비밀(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12 MBC 뉴스 20 밥상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5 생생정보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감성툰 고맙습니다 스페셜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50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재)	20 TV 유치원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텔레몬스터 25 뽀글아 사랑해 55 세상기록 48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겨울방학특선 생명탐사, 지구로의 여정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밥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늘 15 터닝메카드 R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5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흑기사(재)	5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특별기획 진주대첩			
10	30 KBS 뉴스라인	00 흑기사	00 로봇이 아니야	00 이판사판
11	00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55 KBS 걸작 다큐멘터리	10 해피투게더	10 신년특집 MBC 스페셜	10 박스 라이프 1~2부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둠 속의 북한〉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뚝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학이 야호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허브 브로스 도미구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검객부부의 산골로맨스〉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히말라야 소년의 꿈〉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5:3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수학이 야호(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뚝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추위 극복 프로젝트 (feat. 열화상 카메라)〉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이것이 진짜 스리랑카 64개의 섬 마두강가 사람들〉
21:30 한국기행 〈시선기행, 나는 견(犬)이다 지리산 파수견,'멍'받았습니다〉
21:50 과학 다큐 비욘드 〈미래식량, 새로운 먹거리 탄생〉
22:45 다문화 고부열전 〈며느리야 나처럼 살지마〉
23:35 특집 다큐 〈오랑우탄 산드라의 이사〉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1일(음 11월 25일 癸卯)

子 48년생 최선을 다 해야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60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72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 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84년생 불청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겠다. 행운의 숫자 : 21, 22

丑 49년생 하루 종일 바빠서 시간을 쪼개어 쓰느라고 애를 먹겠다. 61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반드시 호전될 것이다. 73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자. 85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3, 98

寅 50년생 마음먹고 있었던 바를 확실히 추진해야 할 때다. 62년생 발버둥 쳐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74년생 일시적으로 마음이 동하더라도 철저히 절제해야만 한다. 86년생 겉과 속이 다르니 현혹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89, 33

卯 51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63년생 소금 팔러 갈려니까 비가 내리는 격이다. 75년생 취득하느냐 상실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87년생 자기 확신에만 치우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4, 00

辰 52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64년생 참된 가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진력하는 것이 옳도다. 76년생 활용만 잘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이다. 88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묻어간다. 행운의 숫자 : 87, 39

巳 53년생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이니 시스템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라. 65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77년생 예상 밖의 국면 전환으로 인해서 공허해지는 운세이다. 89년생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1, 67

午 42년생 수차란 이미 흘러간 물로 움직일 수 없는 법이다. 54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숨겨진 화를 간과할 수도 있다. 66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겠다. 78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라. 90년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라. 행운의 숫자 : 81, 93

未 43년생 원리원칙 고수할 일 아니니 융통성 있는 수완이 요구된다. 55년생 징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67년생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도다. 79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91년생 필히 경험자와 함께하라. 행운의 숫자 : 49, 40

申 44년생 기묘한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56년생 평소에 첨예하게 관심을 보였던 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68년생 격식에 맞아야 제 빛을 발하리라. 80년생 지지기반이 성벽 같이 굳어지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42, 69

酉 45년생 색다른 것이니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함이 타당하겠다. 57년생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황이 없을 것이다. 69년생 기대하여 왔던 바보다 훨씬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된다. 81년생 농담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7, 47

戌 46년생 우려할 일이 보이니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58년생 추진해 놓고 보면 소기의 성과는 보장될 것이니 주저하지 말라. 70년생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 있다. 82년생 시작 해 놓으면 절반 이룬 셈이다. 행운의 숫자 : 86, 06

亥 47년생 객관화 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하므로 쓸모가 없느니라. 59년생 세심하게 살펴보는 진중함을 필요로 한다. 71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83년생 진실은 진심으로만 통한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3, 3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